

일본의 히트상품 랭킹 (2009년)

2009년은 일본도 경기불황의 해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는 히트 상품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웠다. 국가가 주도한 정책으로 히트된 상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.

□ 1~10위 히트상품

1. 프리우스(도요타) - 판매대수 18만대/월을 기록 (205만엔~)



2. 발포주(기린) - 세계 최초로 알콜 농도 0.00%를 개발 (145엔)



3. 드래곤 퀘스트 IX - 인기 게임 시리즈 500만개 돌파 (6,000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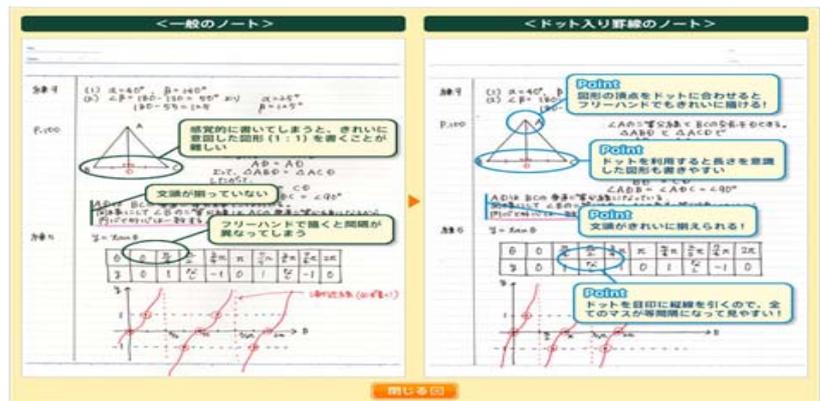
4. 항 인플루엔자 상품 - 전년대비 마스크 6배, 소독액 30배 증가 (1,000엔)



5. 국보 이수라전 - 총 165만명 동원, 사상 3위의 입장자 기록 (관람비 1,500엔)



6. 점이 들어간 노트 - 동경대 학생이 추천,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노트는 아름답다는 평으로 개발된 노트, 반년 만에 1,000만권 판매 (1,150엔)



7. 두발용 무스(Uno Fog Bar) - 판매 3주만에 230만개 출하 (700엔)



8. 포메라 - 메모가 가능한 전자기기, 목표대수보다 3배나 많은 10만대 출하 (35,000엔)



9. 밥솥(미츠비시: 蒸気レスIH) - 맛보다 디자인을 중요시, 동 부문 판매대수 1위 (57,500엔)



10. 990엔 청바지 - 유니클로의 전략상품으로 판매되자마자 목표판매가의 2배를 기록



<참고 문헌>

일경트렌디, 2009년 12월호